



## 문화와 기술의 어울림: 문화기술(CT)

# 모든 산업 근간되는 핵심기술 '문화기술'

인터넷과 SNS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로 인하여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매우 긴밀히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정보로의 접근이 가능해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케 되었으며 빅데이터 연구라는 분야의 학문도 탄생하게 되었다.

### 애플, 사람과 문화 기반한 새로운 인식 제시

이러한 초연결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위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경험과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들이 매일 사용하는 기술처럼 하나의 공통적인 요소로 묶어내기 매우 어렵다. 다시 말해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와 기술의 교차로 인해 큰 성과를 이룬 기술로 많이 언급되는 애플의 아이폰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관통하는 기술 혁신의 지배적 가치관을 전복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즉, 그동안 기술 개발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결과에 최대한 빨리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술이 중심이 되어 개개인의 취향이나 지역적·문화적 특성은 무시되거나 기술이 너무 앞서가 많은 사



글 이동만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원장  
dlee@cs.kaist.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학술정보처 차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학장을 겸임하고 있다.

람들이 그것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결과를 낳았다.

애플은 이 과정에서 전혀 다른 전제를 가진 새로운 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로 전혀 다른 시장이 작동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즉, 과학기술과 인문학 그리고 예술이 상호공존하고 교차하는 길 위에서,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술 개발로 사람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고, 쓰기 쉬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열망이 현실로 구현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제시한 것이다.

### 문화예술·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한 문화기술 형성

국내에서 지금까지 문화기술은 문화콘텐츠의 생산 및 디지털화하는 기술로 협소하게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추어 문화예술·인문사회·과학기술이 융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적이거나 도구적인 시스템화 기술의 총칭으로 문화기술(CT)의 외연을 확장하여 그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 문화기술의 두 가지 하위영역

이에 기반하여 문화기술 분야의 하위 영역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창조적 표현력을 극대화하는 도구로서의 시스템화 기술(Creativity-empowering Technology)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기술, 전시기술, 영화기술, 음향기술, 드라마 제작 기술 등 인간이 가진 상상력과 창조력을 다양한 감각 이미지의 형태로 구현하고, 그 가치를 배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성 기술을 의미한다.

두 번째 영역은 인간의 새로운 문화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나 공간으로 작동하여 새로운 사회적 혁신이나 기술 혁명의 돌파구를 창조하는 기술(Culture-embedded Technology)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소셜 네트워크 기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들이 융합되고 교차 연결되면서 이전 시대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이나 시간 개념을 제안하는 차세대 미디어 스페이스 기술, 엔터테인먼트 게임에서 확인한 몰입성과 재미, 스토리를 교육, 의료, 사회 변화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와 접목하여 사회적 과급력을 배가시키는 기능성 게임 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 문화 콘텐츠 제작이라는 제한적 시각 버려야

이와 같이 문화기술은 세계 시장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각종 기술의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인문과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발생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기술을 문화 콘텐츠 제작만을 위한 기술이란 제한적 시각을 버리고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변화와 핵심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문화 코드인 인간 감정과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ST**